**롬0324 Note**

**◆우리의 되찾아짐(우리 죄들의 탕감)의 근거 : 롬0324 노트**

마2628. 이는 이것은 새로운 성약(聖約, 디아데케:처분,계약,언약,유언/ 구약 베리트:고기에서 유래,고기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계약: 창1510 참조)의 내 피이기 때문이니, 이 피는 죄들의 탕감(면제, 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위해 흘려지느니라.

히0922. 그리고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화(淨化)되며(카다리조:깨끗하게 하다,정결케 하다,정화하다), 그리고 피흘림이 없이는 아무런 탕감(면제, 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도 없느니라.

롬0324. 그분의 은혜(호의)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되찾음[아폴뤼트로씨스: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을 통해, 값없이 적법하다고 여겨짐이라[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의롭다고 간주하다,흠이 없다고 여기다(보이다), 의롭고 흠이 없다고 보이다,간주하다,자유하다,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의롭게 되다/ 히브리어 짜다크(도덕적이나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올바르게 만들다,깨끗케 하다,정결하다,의롭다,의롭게 하다,의를 행하다,의로운 상태가 되다)에 상응],

엡0107. 때들의 가득 참의 시대에,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위에 있는 것 양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기 위해,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의도하셨던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신 후에, 그분께서 온갖 지혜와 신중함 안에서 우리를 향해 풍성하셨던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플루티조: 부유함,표,소유,풍부,부(富),가치있는 물품]을 따라, 그 사랑 받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 피를 통해 되찾아짐[아폴뤼트로씨스: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를 곧, 죄들에 대한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니라,

골0114.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되찾아짐(아폴뤼트로씨스:되삼,벗어남,구속救贖,해방,구원)을, 바로 그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니라.